

19세기 후반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통한 지식·문화 교류의 한 양상

- 『스에마츠 지로 필담록(末松二郎筆談錄)』을 중심으로 -

이 효 정*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3. 필담록에 드러난 지식·문화 교류 |
| 2. 조사시찰단의 파견 배경과 관련 기록 | 의 실제 |
| | 1) 지식·문화 교류의 변화 |
| | 2) 동문(同文) 의식의 균열 |
| | 4. 나오며 |

국문초록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지식·문화의 교류는 사행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조선은 중화 문물을 수용하고 일본[倭]의 문화를 회유한다는 사대 교린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서구식 근대라는 우월이 들이닥치게 되면서 이러한 지식·문화 지형은 변화하게 되었다. 조선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를 계기로 만국공법 질서에 편입되었지만, 1, 2차 수신사는 여전히 교린체제 속에서 대일본 관계를 인식하였다. 하지만 1881년 조사시찰

*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

단 파견은 일본과 교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대화된 일본을 ‘시찰’하고 ‘탐색’하기 위해 실행되었던 최초의 비공식 사절단으로, 이는 동아시아 지식 흐름의 역변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시찰을 담당한 조사와 수행원들은 탐색한 정보를 조선으로 가져가기 위해 관련 서적의 한역본을 얻으려 동분서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스에마츠 지로 필담록(末松二郎筆談錄)』에 담겨져 있다. 한학자 스에마츠는 이상재, 이봉식, 조준영 등과 교류하면서 『日本國內務省各局規則』, 『日本國內務省職掌事務全附農商務省』, 『日本國農商務省各局規則』 등의 보고서 한역에 관여하였으며, 『文部省(所轄目錄)』의 일부를 번역했다. 그동안 시찰기류 보고서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 작성되고 보고되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부나마 이 필담록을 통해 추정 가능해진 것이다.

이 필담록에는 스에마츠와 조선인들 사이에 정의(情誼)와 우정이 엿보이며, 이러한 우호적 관계는 곧 중화 문화의 상징인 한시 수창, 서화, 휘호 증정 등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실제 스에마츠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얻은 주요 정보의 근원은 한적(漢籍)이 아니라 당대의 최신 미디어인 신문이었으며, 조선인들은 왜문자로 쓰여진 정보들을 한역하여 가져가야 하는 낯선 상황에 놓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명(文明)’과 같은 근대 한자어를 서로 달리 이해하는 장면 등을 통해 이 시기 일본에서 만연했던 동문(同文) 의식(즉, 아시아연대론)이 언제든 균열될 수 있는 허구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근대 문물을 시찰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담당했던 분야 이외에는 무관심하거나 수동적이었던 시찰단원들의 태도는 조사시찰단 활동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준다.

주제어 : 조사시찰단, 신사유람단, 스에마츠 지로(末松二郎), 이상재(李商在), 박정양(朴定陽), 이봉식(李鳳植), 조준영(趙準永), 『일본국 내무성 각국규칙(日本國內務省各局規則)』, 『일본국 내무성 직

장사무전부농상무성(日本國內務省職掌事務全附農商務省)』, 『일본국 농상무성 각국규칙(日本國農商務省各局規則)』, 『문부성 소할목록(文部省所轄目錄)』

1. 들어가며

전근대 동아시아 공간에서 지역 간 지식·문화의 교류는 주로 사행(使行)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조선은 주지하다시피 중국으로의 연행(燕行)과 에도막부(江戸幕府)로의 통신사행이라는 사대교린체제 속에서 외부와 접촉하였다. 사대와 교린은 곧 중화의 문물을 수용하고, 일본[倭]을 회유한다는 대외 정책으로 실제 동아시아의 지식·문화 권력의 방향도 중화 대륙에서 한반도를 거쳐 열도로 흘렀으며, 물론 세부적으로는 중국에 조선의 서적이 퍼지기도 하고 일본의 물산이 조선에 들어오기도 하였지만¹⁾ 이 역시 문화지형 내에서는 ‘보편’이 아닌 ‘특수’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전근대적 중화 문명은 열등이 되고 서구식 근대가 우월로 변하는 근대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지식·문화의 지형은 변화하게 되었고, 자의든 타의든 조선도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계기로 이른바 만국공법 질서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이 조약을 계기로 100여 년 만에 일본 본토로 파견되었던 김기수(金綺秀)의 수신사행에 대해, 예조판서 김상헌(金尙鉉)은 일본 외무경(外務卿)에게 보내는 서계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성상께서 옛 우호가 계속 닦이길 깊이 생각하시어 특별히 예조참의 김기수를 파견하여 가게 하여 이로써 답례의 뜻을 대신하려 하십

1) 진재교, 『18세기 조선통신사와 지식·정보의 교류』, 『한국한문학연구』 56권, 한국한문학회, 2014, 361-366쪽.

니다. (후략)²⁾

즉, 양국의 관계를 구호(舊好) 회복과 같은 사대교린 질서의 유지로 파악했던 것이며, 수신사에게 부여하였던 일본 시찰의 임무도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정탐했던 통신사행 의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실제 김기수는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와의 문답에서도,

이번 걸음은 우리 주상의 명령을 받들고 바로 귀국의 외무성에 나아가서, 봄에 귀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던 예를 회사(回謝)하고 옛날 신의(信誼)를 수호(修好)할 뿐이며, 다른 성(省)을 차례로 찾아보라는 명령은 받지 못하였으니 다른 예(禮)를 내 독단으로 행하는 것은 나로서는 감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³⁾

라며, 사행 내내 근대적 문물을 견문하라는 일본의 권유를 뿌리치기에 바빴다. 사신 파견 이전에 그가 확보했던 정보들에 기반하여⁴⁾ 예상했던 일본과, 실제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일본은 극명하게 달랐기에 이해할 수 없었던 ‘기기음교(奇技淫巧)’들은 더 이상 그가 시찰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1880년 세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제2차 수신사 김홍집(金弘集)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근대화한 일본의 상황을 알고 있어 이를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드러난 그의 활동은 소

2) 惟我聖上, 深念舊好之續修, 特派禮曹參議金綺秀前往, 庸寓回謝之義(『일동기유(日東記遊)』, 「문사(文事)」)

3) 今此之行, 奉我主上之命, 直詣貴外務省, 謝春間之禮, 以修舊信而已. 未聞有他省歷謁之命, 則擅行他禮, 鄙人之所不敢也.(『일동기유(日東記遊)』, 「문답(文答)」)

4) 이들은 1811년 역지빙례(易地聘禮), 1764년 에도(江戸)로의 통신사행 이후 일본 내부의 상황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당시 조선 조정이 가지고 있던 일본 관계 자료는 최신의 것이라고 해도 대개가 100여 년 전의 자료였고, 이마저도 유교적 우월의식으로 가득 찬 통신사행에서 기행문 형식으로 작성한 보고서였으며 그나마 극소수의 관계자만 읽을 수 있었다.(허동현, 『근대한일관계사연구』, 국학자료원, 2000, 25쪽 참조)

극적이었다. 일본인들의 유람 권유를 거절하고 근대 건문을 공적인 신분으로는 할 수 없다며 수행원을 대신 보내는 일이 적지 않았으며⁵⁾ 『조선책략(朝鮮策略)』과 『이언(易言)』의 유입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청국 공사관들과 더욱 활발하게 접촉하였다. 대세에 밀려 근대적 통상 조약을 맺었지만, 조선의 조정이나 사회는 그 변화의 의미를 읽지 못했고 여전히 전근대적 사대교린 체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881년에 파견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⁶⁾은 이전 사행들과는 그 의미가 달랐다. 제1, 2차 수신사가 이 새로운 관계를 일본의 요청에 의한 답례나 구호를 바탕으로 하는 시혜적 의미의 교린 관계로 인식했던 것에 비해, 조사시찰단은 고종의 자발적이고도 강력한 결단에 의해 일본과 ‘교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대화된 일본을 ‘시찰’하고 ‘탐색’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최초의 비공식 사절단이기 때문이다.

이들 관련 자료로는 주로 왕에게 보고하기 위한 시찰기(視察記)류와 문견사건(聞見事件)류 보고서가 있다.⁷⁾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대부분 보고하기 위한 공적인 기록이었던 만큼 (자기) 검열을 거쳤기에 이것들만으로는 이들이 일본에 머문 동안 실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또 일본인과 어떻게 교류하였는지 등에 대해 추적하기 어렵다. 이보다는 조사들이나 수행원들이 기록한 ‘사행록’, 일본인들과의 교류가 현장감 있게 살

5) 이효정, 「제2차 수신사의 일본 견문 태도와 교류의 실제」, 『열상고전연구』 51권, 열상고전연구회, 2016, 225-250쪽.

6) 조사시찰단은 아직 그 명칭이 확립되지 않았다. 허동현에 따르면, 조선 조정에서는 일관되게 ‘조사(朝士)’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신사(紳士)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일반적이며, 유람(遊覽) 또한 현재의 의미를 고려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들에게 동래암행어사(東萊暗行御史)라는 직함이 있었기에 사적인 여행이라 할 수도 없으니 ‘시찰’이라 해도 무방하다 하였다.(허동현, 앞의 책, 13쪽.) 이러한 의견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사업 및 선행 연구에서도 조사시찰단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랐다. 또한 본고에서 사용한 연월일은 모두 양력이고 음력은 따로 표시하였다.

7) 윤현숙, 「1881년 조사시찰단의 보고서 작성 방식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54권, 열상고전연구회, 2017, 225-250쪽.

아있는 필담록 등의 사적 기록이 오히려 시찰단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자료인 『스에마츠 지로 필담록(末松二郎筆談錄)』을 통해, 과거와 달라진 지식문화 지형 속에 파견된 조사시찰단이 수행했던 근대 지식의 유입 과정과 인적 교류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살펴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지식·문화 교류의 한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2. 조사시찰단의 파견 배경과 관련 기록

조사시찰단 파견 무렵, 사대국 지위를 유지하려던 중국 이홍장(李鴻章)의 권유와 『조선책략』과 『이언』 등의 영향으로 고종은 구미(歐美) 수교에 열의를 보였고, 고위 관료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조선은 이른바 ‘개화’ 정책의 길에 들어섰다. 이는 곧 새로운 정치기구인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탄생시켰고, 이 기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팁을 얻기 위해서라도 조사시찰단 파견이 시급했다. 특히 고종은 내탕금에서 파견 경비를 지급할 정도로 시찰단 파견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외에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전반적인 정세, 즉 조정의론(朝廷議論), 국세형편(局勢形便), 풍속인물(風俗人物), 교빙통상(交聘通商) 등을 상세히 탐지하고 일본 정부 각 부서의 사무를 조사·파악해 참고하고자 하였다.⁸⁾

그러나 지식·문화의 기존 권력들의 반발도 컸다. 원산이 개항되고 서울에 일본 공사관이 개설되는 등 일본의 진출이 본격화되자 이에 격앙된 위정척사 세력들이 조정의 개화정책에 집단적으로 반발하였으며, 이에 조정에서는 결국 조사시찰단을 공식적으로 파견하지 못하고 동래암

8) 허동현, 앞의 책, 32-33쪽.

행어사로 임명해 비밀리에 일본에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로 임명된 이현영(李鉉永)은 세관 사무 등을 탐색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 전술한대로 조사시찰단이 그동안 일본에 파견된 그 어떤 사절과도 성격이 달랐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전략) 그래서 그 열 줄의 글을 엮으려 읽사오니, 그 뜻은 곧 일본인의 배에 섞여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세관 사무 및 기타를 보고 듣고 탐색하여 오라고 하신 것이 온 바, 신은 그 명을 받잡고 깜짝 놀랐습고, 심신이 떨리어 몸 둘 바를 몰랐었습니다. 이 말기심은 직지(直指, 어사의 별칭)로서 안탐(按探)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서 독단(專對)하라는 사령(辭令)도 아니었습니다. 일본국에 사신으로 가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전의 통신사(通信使)나 수신사(修信使)의 일과는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⁹⁾

조사들은 모두 12명이 파견되었는데 주지하다시피 개별적으로 임무가 주어졌다. 조준영(趙準永)은 문부성(文部省), 박정양(朴定陽)은 내무성(內務省), 엄세영(嚴世永)은 사법성(司法省), 강문형(姜文馨)은 공부성(工部省), 조병직(趙秉稷)과 민종묵(閔種默), 이현영은 세관(稅關), 심상학(沈相學)은 외무성(外務省), 홍영식(洪英植)은 육군성(陸軍省), 어윤중(魚允中)은 대장성(大藏省), 이원회(李元會)는 육군조련(陸軍操練)을 시찰하고 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 조사와의 사적 친분으로 선발된 수행원들이 2,3명씩 있었고 통사나 하인들도 1명씩 포함되어 시찰단원은 총 60여 명이 되었다.

시찰기류와 문건사건류 보고서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발견된 조사시찰단의 사행기록과 필담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행기록으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이현영의 사행기록인 『일사집략(日槎集略)』, 어윤중의 『종정연표(從政年表)』와 『수문록(隨聞錄)』, 박정양의 『중환일기(從宦日

9) 『일사집략』 天, 『別單』

記』, 이원회의 수행원 송헌빈(宋憲斌)의 『동경일기(東京日記)』, 강문형의 수행원 강진형(姜晉馨)의 『일동록(日東錄)』, 이현영의 수행원 민건호(閔建鎬)의 『동행일록(東行日錄)』이 있으며, 필담으로는 미시마 주슈(三島中洲)와 가와키타 바이잔(川北梅山), 엄세영의 수행원 최성대(崔成大) 간에 이루어진 필담록(『三島・川北・崔成大筆談錄』), 『스에마츠 지로 필담록』, 『담초(談草)』 등이 있다.¹⁰⁾

이 가운데 본고에서 주요하게 다룰 자료는 『스에마츠 지로 필담록』이다. 이 자료는 현재 일본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청구기호는 따로 없고 별도로 관리 중이다. 껍선이 들어가거나 무늬가 없는 화지이고 종이로 꼬아 제본하였으며 모두 8권이다. 그중 일부는 필담에 사용한 종이와 같은 종이로 뒷 표지를 만들었는데, 스에마츠의 글이 남아 있고 전후 관계를 알 수 없는 곳 등 결락도 많아 필담이 끝난 직후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바로 제본하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¹¹⁾ 그런 까닭에 전후관계를 알 수 없는 부분이나 판독되지 못한 글자, 고쳐 쓴 글씨가 꽤 있다. 어쨌든 이 가운데 조사시찰단 관련 기록은 1881년 6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로 유진태(兪鎭泰), 이상재, 이봉식, 조준영, 홍영식, 어윤중, 함낙기(咸洛基), 황천옥(黃天域), 김양한(金亮漢), 민종묵과 16회에 걸쳐 필담을 나눈 부분이다.

스에마츠 지로는 생몰년 미상인 재야인사로, 기록에 따르면 일찍이 일본 한학(和漢學)과 시문장(時文章)을 배우고 경학 시문(經學時文)을 연

10) 참고로, 허동현은 이러한 류를 잡저(雜著)류로 분류하였다. 이는 시찰기류 보고서와 문건사건류 보고서를 제외한 관련기록을 일컫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동행일록』과 필담 2종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이 중 어윤중의 『수문록(隨聞錄)』이나 안중수의 『농정신편』은 정보지에 가깝다.(허동현, 『조사시찰단(1881)의 일본 견문기록 총람』, 『사총』 48집,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98, 49쪽.)

11) 아키즈키 노조미(秋月望), 『스에마츠 지로의 필담록에 나타난 ‘근대’』, 『근대 교류사와 상호인식』 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12-13쪽. 해당 필담록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 논문이 유일하다. 스에마츠의 생애에 대해선 이 논문을 참고바란다. 다만, 내용상 몇 가지 오류가 있어 본고에서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구하였으며 1876년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도쿄외국어학교 고등 한학부(漢學部)를 졸업하였다. 1880년에는 대학부 수험생 강습소를 개설하고 1881년 조사시찰단이 도래하였을 때에는 도쿄 홍문학관(弘文學館)의 한 학교수가 되었다. 그는 한학 뿐 아니라 양학도 배워 1870년대 후반 독일어를 비롯한 서구 근대의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수학하였다. 그는 7월 17일 ‘조선의 시의(侍醫) 관리 모씨(某氏) 세 사람과 함께한 필담록’에서

(전략) 또 처음으로 귀하께서 일국(一國)에서 의술이 최고로 뛰어난 분임을 들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저의 집은 여러 세대에 의사를 직업으로 하였으며, 저의 아버지 홍봉(鴻峰)은 실질을 궁구하는 순수한 한방 의사였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양 의와 한 의의 두 가지 방법은 크게 우열(優劣)이 없으며 오직 사소한 정밀함과 거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친의 평소 생각과 논점은 양의(洋醫)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리키건대, 저의 부친의 생각과 논점은 또한 당시 그 곳 한의사였던 아사다 소하쿠(淺田宗伯)씨의 생각과 그 뜻을 같이하였습니다.(후략)¹²⁾

위와 같이 말하며 부젠(豊前)의 나카즈항(中津港) 출신으로 집안이 대대로 의사를 지냈다고 한다. 덧붙여 이 때 필담한 3인은 함낙기, 황천옥, 김양한인데, 민건호의 『동행일록』에 따르면, 함낙기가 일본의 병원 견학 등에 관심을 가진 사실이 보이고¹³⁾ 직책이 참봉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들 중 시의를 지냈을 만한 인물은 홍영식의 수행원인 함낙기로 보인다.¹⁴⁾

12) (전략) 且始聞足下之爲一國手, 欣羨之意, 何有如之者耶? (중략) 然僕家累世業醫, 而家君鴻峰窮實純粹之漢方醫, 而常自曰洋漢二醫法無大優劣, 而唯有小精粗而已. 家君平日之思論不屈於洋醫也. 僕愚指家君之思論, 亦當地漢家淺田宗伯氏之思論同其意也. (『與朝鮮侍醫官吏某三氏席上筆談錄』, 7월 17일) 스에마즈 필담록의 경우에는 필담 제목과 날짜(양력)만 표기한다. 대화인 경우에는 인용문에서는 이름으로, 각주에서는 따옴표로 구분하였다.

13) 午後, 與咸參奉, 柳碩土正秀, 率白福周, 往病院, 則主醫出他, 酬接人大橋操吉, 迎接于迎客屋. 接話後, 至一處. (『동행일록』 (음력) 5월 4일)

14) 함낙기는 실제 의학 지식을 드러내며 스에마즈와 필담하였다. 勞瘵之症名以肺

또한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였다면서 아사다 소하쿠(淺田宗伯, 1815-1894)의 이야기를 꺼내었는데, 아사다 소하쿠는 통칭으로, 본명은 아사다 고레쓰네(淺田惟常), 호는 율원(栗園)이며 한의학과 유학, 역사학을 두루 배워 문장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도쿠가와(德川) 막부의 전의(典医)를 거쳐 1875년에는 궁내성(宮內省)의 시의로 임명된 메이지 일본 최후의 한방의였다. 1876년 제1차 수신사행 때에 김기수 일행이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가 초대 한 자택 연회에 참석하였을 때 아사다 소하쿠도 함께 자리하며 오랜 시간 시를 수창하며 서화를 나누었고¹⁵⁾ 1880년 수신사행 때에도 소(宗)씨의 저택에서 김홍집과 시를 주고받은 기록¹⁶⁾도 있다. 아마도 스에마츠는 조선 사절과 교류가 있던 시의(侍醫) 아사다를 내세움으로써 스에마츠 자신의 친근감을 드러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필담록에 드러난 지식·문화 교류의 실제

1) 지식·문화 교류의 변화

에도(江戸) 시대에는 통신사가 일본에 도래할 때마다 조선의 제술

病, 而治療之一般 聊或無怪, 然其他能副乎? 肺者臟之華, 蓋營衛一身, 故病至於大則, 歸於肺似當矣. 所謂勞瘵亦未病也. 故想應同治之, 偶中者能而至, 若西醫之精(중략) 僕之素志亦不在医理, 然早年以親瘵之焦餘, 電閱始于醫書矣. 幸於奉拜誠非偶然, 得此藪明篇之專視, 感甚感甚, 當如戒披閱矣. 僕文拙辭蕪, 恐難讚成, 今聞足下琅琅之聲心私抱惑焉. 足下以爲如何.(『與朝鮮侍醫官吏某三氏席上筆談錄』, 7월 17일)

15) 俄而漢醫淺田宗伯號栗園字識此, 文士栗本鋤雲, 外務大丞鹽田三郎及田邊太一, 皆來到坐定, 琴師山勢云者, 携琴而至, 彈奏數曲, 四人觴詠交錯, 皆以草書寫詩以呈之, 正使和以酬之.(『창사기행(滄槎紀行)』, 5월 16일)

16) 창수시『宗氏邸席上, 恭呈朝鮮星使金君』와 『和淺田』가 『조선국수신사김도원관계집(朝鮮國修信使金道園關係集)』에 남아 있다.

관·서기 등과 한시를 수창하려는 일본 문인들이 숙소로 찾아와, 한 사람이 하루에 7, 80수씩 짓는 것이 보통이었다. 일본인들은 필담에 임할 때에도 100년 전 조선의 『일관요고(日觀要攷)』를 참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준비된 모습을 보였다.¹⁷⁾ 이는 전술한 대로 조선이 일본 입장에서는 중화(中華)이고 문명(文明)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후반 제 1, 2차 수신사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한학자들이 찾아오는 일은 줄었고, 조선의 통상개방과 문명개화를 설득하기 위해 관료들의 방문이 늘었다. 그러나 조사시찰단의 경우에는 거꾸로 조선의 시찰단원들이 시찰하면서 얻은 근대의 지식 정보를 자신들의 지식체계에 맞게 가져가기 위해(혹은 보고하기 위해) 일본 한학자들을 찾아다녔다. 『스에마츠 지로 필담록』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스에마츠 : 근래 우리나라의 일일신문(日日新聞)을 읽고, 선생께서 계시는 곳을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경모하는 마음 다함이 없습니다. 뛰어난 모습 보여주시길 청합니다.

유진태 : 과객으로 있는데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중략)

스에마츠 : 근래에 저의 누추한 곳에서 존함을 들었으나, 마침 저에게 일이 있어 마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공경히 사죄 또 사죄드립니다.¹⁸⁾

이 대화가 이루어진 6월 5일은 스에마츠가 조선인을 처음 만난 때로 선행 연구에서는 스에마츠가 약속이나 소개도 없이 신문에서 조사시찰단의 숙소를 보고 먼저 찾아간 것이라 하였지만 이는 잘못이다.¹⁹⁾ 조사

17) 허경진, 『수신사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태도 차이』, 『열상고전연구』 53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29쪽.

18) “頃日讀我邦日日新聞, 得詳先生之尊寓, 敬慕之念不絶, 乞賜高顔”, “在過客有此克念, 感謝感謝.” (중략) “近者尊銜入通于鄙所, 而適我有故, 失迎, 甚悚幸恕焉. 敬謝敬謝.” (『明治十四年辛巳六月五日 與朝鮮紳士筆談問答錄 末松二郎鴻岳問答』, 6월 5일) 원문에는 이름이 없으나 인용문에는 편의상 붙였다.

시찰단이 먼저 스에마츠를 찾아갔으나 그가 부재중이어서 이름만 남기고 돌아갔고, 스에마츠는 이에 대한 답례로 신문 정보를 통해 조사시찰단을 방문한 것이다.

다음에서와 같이 스에마츠는 청국 공사관의 의뢰로 율령(律令)을 한역한 적이 있으며,

스에마츠 : 저는 일찍이 청나라 공사(公使) 하씨(何氏)를 위해 우리나라의 율령을 한역(漢譯)하였습니다. 해당되는 글을 급하게 여겨 빨리 마치게 했습니다. 지금은 지나(支那)의 속어(俗語)를 번역합니다.²⁰⁾

조사시찰단은 도쿄 도착 이후부터 청국 공사 하여장(何如璋)을 수시로 만나 교류하였으니²¹⁾ 하여장이 한역해 줄 만한 사람으로 스에마츠를 시찰단원들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번 만난 것뿐인 사람에게 한역을 부탁할 만큼 시찰단의 한역 작업이 수월하지 않았다는 가설이 옳다고만 할 수는 없다.²²⁾ 체류에 기한이 있어서 들렀겠지만, 청국 공사를 통해 이미 검증된 한학자를 섭외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이상재 : 제가 귀국에 들어와 애초부터 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비로소 내무성 서기관 니시무라 스데기찌[西村捨吉] 씨와 더불어

19) 아키즈키 노조미, 앞의 논문, 20쪽. 이 시대에도 통신사 시대처럼 수신사를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지만, 대부분은 순사들의 저지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20) 僕嘗爲清國公使何氏, 漢譯本朝律令矣. 該文以爲急, 速令畢, 當今支那俗語譯之矣. (『明治十四年辛巳六月二十八日 與朝鮮人李月南筆談錄』 6월 28일)

21) 어윤중은 수 회에 걸쳐 하여장과 필담하였고(『담초』), 강문형, 엄세영, 민종목의 『문견사건』 보고에도 하여장이 등장한다. 사행록에는 구체적으로 조사시찰단이 (음력) 5월 5일, (음력) 5월 7일에도 하여장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다. (『동경일기』, 『동행일록』)

22) 아키즈키 노조미, 앞의 논문, 22쪽.

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귀국의 정치 요체를 보게 되어 약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책과 서류는 당연히 그 중에 글자가 같지 않은 곳이 많아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어찌 대추를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세하지 못한 곳은 마땅히 하나 하나 질문을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상세한 답을 내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략)

스에마츠 : 니시무라(西村)공은 내무관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에게 드린 책이 이와 같을 따름입니다. 귀하께서 이 문장의 뜻을 잘 통할 수 없는 즉, 저에게 바란다면 한역(漢譯)을 하여 그 일단을 보이겠습니다.²³⁾

이상재 : 한문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 근처에 있습니까?

스에마츠 : 이 근방에 잘 번역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상재 : 반드시 번역해야 할 것이 있으나, 다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지요? 어찌지요?

스에마츠 : 이와 같은 책은 별도로 엮은 사서가 있습니다. 당시에 명유(名儒)였던 시게노(重野)²⁴⁾와 가와다(川田)²⁵⁾가 있으며, 그 밖에 수백

23) “俺入貴國初無所交之人，日前始與內務省書記官(西村捨吉)公有交，而爲觀貴國政要略有所得，冊書當其中多有不同文之處，未得詳解，是何異於吞棗之罔誦乎。然其未詳處，當一一取質矣。幸賜詳答否?” (중략) “西村公係內務官，故所贈冊如是耳。足下不能通此文意，則乞僕漢譯之，以示其一端乎。”(『明治十四年辛巳六月七日 自由書屋主人末松二郎鴻岳 筆談問答 與朝鮮紳士 筆談問答錄』, 6월 7일)

24)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繹): 1827-1910. 호는 성재(成齋). 사쓰마국(薩摩國) 가고시마(鹿兒島) 출신. 1871년에 문부성(文部省)에 출사하여 1875년 태정관(太政官) 정수사국(正修史局)에 들어간 후 1879년 도쿄학사회원(東京學士會院)의 회원이 되었으며, 중국어 교육에 힘썼다. 이후 1880년 창립된 흥아회(興亞會)에 참가하였으며, 1881년 『대일본편년사(大日本編年史)』 편찬에 관여하였다. 1881년 5월 5일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 수행원이 외무성에서 『조약유찬(條約類纂)』을 빌렸는데, 일문(日文)이 섞여 있어 한문으로 번역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이에 이 현영이 시게노 야스쓰구에게 『조약유찬』의 번역자를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일사집략(日槎集略)』 人, 訪駿河臺居重野安繹 號成齋 問答.)

25) 가와다 오우코(川田甕江): 1830-1896. 메이지(明治) 시기의 한학자. 원래 이름은 다케시(剛), 자(字)가 의경(毅卿). 도쿄제국대학 교수 역임. 저서로 『문해지침(文海指針)』, 『근세명가문평(近世名家文評)』, 『일본외사변오(日本外史弁誤)』 등이

명의 한학자가 그것을 맡았습니다.

이상재 :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이미 들었으나, 사림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세 권의 책은 농무(農務)와 상무(商務)의 긴요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한문으로 번역하여 돌아갈 때 가지고 가려합니다. 하지만 뜻과 같이 되지 않아 매우 고민입니다. 귀하께서 저를 위해 널리 사람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고자하는 번역을 이룰 수 있다면 마땅히 수고에 보답하는 뜻과 인사말이 그 사람에게 미칠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직접 해주시는 번역을 얻게 된다면 매우 다행이겠지만, 무례함이 될듯하여 감히 청을 드리지 못합니다.

스에마츠 : 제가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귀하께서 저의 졸렬함을 헤아리지 않고 억지로 청하실 줄은 스스로도 헤아리지도 못하였습니다. 장차 글씨를 써서 그것을 한역(漢譯)하겠습니다. 이 또한 서로 사귀는 정의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재 : 만약 귀하의 승낙을 받게 된다면, 어찌 백 명의 벗이 있는 것과 같을 뿐이겠습니까?²⁶⁾

이와 같이 이상재는 시찰한 내용을 한역할 일본인들을 애타게 섭외하려 하였고, 그 내용은 물론 자신이 수행하는 박정양이 담당하였던 내무성과 농상공부에 관련된 서적을 한역하는 일이었으며 스에마츠는 이를 기꺼이 수락하였다. 다시 말해 위 기록을 통해, 박정양이 보고했던 『日本國內務省各局規則』, 『日本國內務省職掌事務全附農商務省』, 『日本國農商務省各局規則』 등은 스에마츠가 일부 또는 전부를 초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있다.

- 26) “漢文譯之人, 此近有之乎?”, “此近傍未知有善譯者也”, “有不得不譯者, 而顧無所交之人, 奈何奈何.”, “如是之書, 別有修史焉, 當時有名儒重野・川田, 其他數百名漢學者任之.”, “此兩人之名, 已聞之而其於無交, 何哉. 三冊係是農商務之緊要者, 故將欲譯漢歸携, 而不得如意, 甚悶甚悶. 貴下幸爲我廣搜其人以圖譯得, 則當爲酬勞之意言及於其人焉. 若得貴下之親手譯惠, 則甚幸甚幸, 而涉於傲慢, 而不敢請也.”, “僕何敢然? 足下不省僕之拙, 而強囑之, 則僕不自揣, 將下筆漢譯之, 是亦交誼之一端也歟”, “若蒙惠諾, 則何啻百朋.”(『明治十四年辛巳六月七日 自由書屋主人末松二郎鴻岳 筆談問答 與朝鮮紳士 筆談問答錄』, 6월 7일)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스에마츠와 한역에 관해 언급한 사람은 이상재 뿐이라 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²⁸⁾ 스에마츠의 경우 농상무성, 내무성 관련 자료만 한역한 것이 아니다. 그는 문부성 시찰을 명받은 조사조준영과 그의 수행원 이봉식(李鳳植)을 만나 필담을 나누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스에마츠 : 저는 요전에 그 반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과(學科)의 세밀함에 이르러서는 수십 페이지로 다 갓출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하께서 타이르신 대로 가급적 두루 상세함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만약 실용적인데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이 상세하게 번역한 책은 다만 그림속의 떡과 같을 뿐입니다. 그 대략을 기억하여도 좋겠지만, 만약 실제의 경우에 시행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근래에 이미 대학(大學) 의학부(醫學部)의 정해진 규칙과 학습하는 과정 및 병원의 규칙은 번역을 바쳤습니다. 개성학교(開成學校)에 관한 규제는 아직 번역하는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봉식 : 의학과 병원에 관한 규칙은 이미 번역이 다 되었습니까? 이것이 어찌 일시에 배울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곧장 그 규칙을 훑어보고 그 정해진 규칙이 어떠한지를 살피는데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미 번역한 것을 상세히 보여주시기를 청합니다.

스에마츠 : 번역 책의 뜻을 통하게 하는 것인즉 제가 어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귀하의 부탁을 소홀히 할 수 없어 그 책임을 때렸을 뿐입니다.²⁹⁾

27) “拜侯之時携來可乎? 其時亦可呈以前所囑之書也. 足下善待乎否.”, “此則萬萬不敢大抵人之爲人, 先以廉恥爲務, 然後仁義禮智, 亦在其中矣. 前日所囑, 雖出於不得已者, 而更又以此貽惱於貴下, 則是但知友誼之爲重, 而不知廉恥之何居者也.”, “貴下雖以友誼而有此教, 僕則不敢不敬”, “若貴下不薦一人, 則譯書一事, 將斷念矣. 善待二字, 倘不免我責耶.” (『明治十四年辛巳六月十七日. 自由書屋主人末松二郎鴻岳筆談, 與朝鮮人李月南居士商在 筆談錄』 6월 17일) 한역에 한 사람이 더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28) 아키즈키 노조미, 앞의 논문, 22쪽.

29) “僕過日成譯了其半, 然至其學科之周密, 則非數十葉紙之所悉也. 然僕如貴諭, 可及의悉其周詳焉. 然足下若非用之於實用, 則此周密之譯書, 唯屬畫餅耳. 記其大略而

즉, 이상재만이 아니라 이봉식도 스에마츠에게 한역을 부탁하였다. 그는 대학(大學) 의학부(醫學部)의 규칙과 학습 과정 및 병원의 규칙을 한역하였고, 개성학교 관련 규칙은 아직 번역하지 못하였지만 곧 할 것이라 이야기하였다. 그러므로 조준영이 귀국 후 보고한 시찰기 『문부성 소할목록(文部省所轄目錄)』의 내용 중, 적어도 대학 의학부(大學醫學部)의 연혁, 통칙(通則), 예과과정(豫科課程), 본과과정(本科課程), 제약학 교장 규칙(製藥學敎場規則), 제약학 본과과정(製藥學本科課程), 통학생 규칙(通學生規則), 의학통학생 학과과정(醫學通學生學科課程), 제약학통학생 학과과정(製藥學通學生學科課程), 부병원규칙(附病院規則)은 스에마츠가 한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마도 전술한 대로 그가 대대로 의사 집안 출신의 의사였다는 점이 이러한 번역을 수월하게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재는 10여 년간 박정양의 문사로 있었으며, 『종환일기』에 의하면 박정양의 수행원은 원래 최준식(崔俊植), 왕제웅(王濟膺)이었지만³⁰⁾ 박정양이 전주(全州)에 도착하자 이를 듣고 이상재가 찾아와 최준식 대신 합류하였다고 한다.³¹⁾ 이상재는 스에마츠가 지리지에 대해 논할 때에도 농무(農務)에 관한 자료에 대해 되물을 만큼 박정양의 시찰 임무를 적극 적으로 도왔다.³²⁾ 조사들이 실제 시찰해야 할 업무의 양은 상당하였고

可若施之於實地, 則甚可. 頃日已譯了, 大學醫學部制規學課並病院規則矣. 未譯乃彼開成校之規制也”, “醫學病院之規則, 已爲譯成乎? 此何可一時可學之事乎? 直不過觀覽其規則, 察其制規之如何也. 請以已譯者, 詳示焉.”, “譯書通意, 則僕何敢焉? 唯不忽足下之高囑, 而塞其責而已.”(『明治十四年辛巳七月十一日午前十時. 第三會. 自由書屋主人末松二郎鴻岳 與朝鮮書家李鳳植筆談錄』, 7월 11일)

30) 發行. 與益山崔俊植, 王參奉濟膺, 別陪李秀吉·金學默, 京驛卒金興燁伴行.(『종환일기』, (음력) 1월 24일) 선행연구에서 김준식이라 되어 있으나(허동현, 앞의 책, 56쪽.) 최준식이 맞다.

31) 仍留. 韓山李雅商在聞余行事而來此, 故以同行爲定. 崔雅則自此還送.(『종환일기』, (음력) 2월 3일)

32) “是係泰西譯書, 卽論萬國地理之略者也. 至我邦地理, 則有兵要地理誌, 貴國地理誌兵要外, 更無農務所關者乎?”, “我國古來, 多種樹之書, 如農學全書, 農務小言等書是也. 然近來我政府人民共所據所貴者, 多主泰西之農學也. 然未見其譯書之可者, 今所譯了之書, 唯有來.”(『明治十四年辛巳六月十七日. 自由書屋主人末松二郎鴻岳

일본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기에 수행원들의 이러한 활동과 태도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다른 수행원들 역시 조사들의 임무를 돕기 위해 분주하였다. 이미 알려진 대로 사법성 시찰의 임무를 맡은 엄세영의 수행원 최성대도 사법 관련 한역을 얻기 위해 한학자들을 찾아 다녔기에 미시마 주슈(三島中洲)와의 필담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³³⁾

미시마: (전략) 선생이 만약 우리 글, 즉 가나(仮名)의 한역을 바라신다면, 시간이 있는 지인 중 한문에 능한 이가 있으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성대: 만약 전일 부탁드린 ‘治罪法’의 번역을 얻는다면, 그 외 달리 번역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중순이라는 약속을 기다릴 뿐입니다.³⁴⁾

또한 조사 이현영의 수행원 민진호 역시 『동행일록』에서 이현영이 외무성에서 얻어온 『조약유찬(條約類纂)』의 한역을 지속적으로 교정하는 일을 하였다.

우에노(上野)·임기홍(林基弘)과 함께 洞裏木山³⁵⁾-바로 『조약유찬』을 한역(漢譯)한 사람이다.-의 집에 갔으나 마침 출근하고 없어서 그저 명함만 남기고 돌아왔다. 다케오(武雄)가 또 와서 종일 『조약유찬』을 교정하였다.³⁶⁾

筆談, 與朝鮮人李月南居士商在 筆談錄, 6월 17일)

33) 최성대와 미시마 주슈의 필담록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효정, 「1881년 조사시찰단의 필담 기록에 보이는 한일 교류의 한 양상」, 『한국문학논총』 56집, 한국문학회, 2010, 103-128쪽.

34) 위의 논문, 108쪽에서 재인용.

35) 미상.

36) 與上野及林基弘, 往訪洞裏木山-即條約類纂翻譯人-家, 適值仕進, 只留名帖而還. 武雄又來, 終日較正類纂. (『동행일록』, (음력) 6월 30일) 이현영의 기록에도 자신을 찾아온 나카타 다케오와 『조약유찬』을 교정했다는 기록이 있다. (『日槎集略』, 6월 28-29일)

이와 같이 이상재, 이봉식, 최성대, 민건호 등이 사행 중 일본인과 필담 및 수창을 여러 차례 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행원들은 단순히 조사와의 친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재(文才)가 있는 사람들이었다.³⁷⁾ 조선시대 사행에서 문학적 자질은 외교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특히 조사시찰단의 경우 각자 담당할 시찰 분야에 대한 관련 서적의 한역을 교정하거나 보고를 직접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문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행원으로 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전근대 시기 문화적 ‘교화’를 위한 도구였던 문장 능력은, 이제 지식 ‘수용’을 위해 필요한 시대로 변화했던 것이다.

또한 대개 사행에서 수행원들은 관료 사신들을 대신하여 사행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귀국 후에 서로 공유하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이 기록이 왕에게 전달되기도 하였기에 수행원은 철저하게 기록을 남기는 경향이 있었고 주로 문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선발되었다. 다시 말해 조사시찰단이 남긴 시찰기류 보고서들은, 먼저 조선인의 요청을 받아 한문에 능한 일본인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수행원과 조사들은 이 한역물을 확보하고 교정하여 조정에 보고했던, 양국의 협력적 공동 보고서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일본은 ‘교화’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조선인들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일본의 지식과 문물을 파악하기 위해 한역 업무에 힘을 쏟았다. 조선의 문화적 우월을 전파하던 한문은 이제 역으로 일본의 침단을 수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했다. 전술하였던 조사 및 수행원들의 한역본 확보 작업은, 사대교린을 넘어 ‘소중화’라 자칭하던 조선에서 실행되었던 조사시찰단 파견이 동아시아 지식·문화 지형의 역변을 상징하는 결정적 사건이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37) 한태문, 『紳士遊覽團 使行錄에 반영된 한일문화교류 : 『日槎集略』과 『東行日錄』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52권, 대한일어일문학회, 2011, 409-410쪽.

2) 동문(同文) 의식의 균열

스에마츠와 조선인들은 여러 번의 필담을 통해 소통을 계속 이어나갔다. 사행 중 일어나는 필담은 중화 문화 교류의 상징이라 할 수 있었다. 필담은 구어가 서로 다른 지역인들에게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지역 간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고, 특별히 통역을 담당하는 관리들과는 계급 및 지식 기반이 달랐던 사행 상황에서 고위 관료들은 고급 지식 담론 일수록 필담을 통해 논하고자 하였다. 한문 및 한자-곶, 신성한 침묵의 언어-는 그들을 중화(中華)라는 정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곤 하였다. 이들은 구어는 물론, 정치적 배경이 서로 달랐음에도 필담 상황에 놓여서는 정감있는 태도를 보이고 전고(典故)를 이용하며 문화적 일체감을 느끼는 등 중화 문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문(同文) 의식 및 문화적·계급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19세기 후반의 일본인 스에마츠와 조사시찰단의 조선인들 또한 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스에마츠는 자신이 만난 조선인들에게 끈질기게 중화적 ‘문명’인 서화(書畫) 혹은 휘호(揮毫)를 요청하였다. 근대 만국 공법에 기반을 둔 통상과 개항을 조선에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던 당시 일본의 지식인에게도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상징은 여전히 ‘한문’의 글씨였으며³⁸⁾ 한시를 함께 수창하기 원하였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스에마츠 : 이 서첩 위에 휘호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봉식 : 지금 바야흐로 대문을 나왔기 때문에 혼잡하고 어수선했니

38) 南遊江淮, 以博其志, 於楚漢古戰場, 得其雄偉之勢, 於洞庭瀟湘之間, 得其廣闊浩蕩之意, 所以韓文公勸, 馬才子學子長之遊, 今見貴下所示, 傲遊放逸, 無所不至云, 果然如子長之南遊乎. 然則雖使韓文公在世, 必當許與一頭地, 不後於馬才子也. 至若知其人, 莫如見書之示, 甚切當切當, 大抵書法, 能寫其心, 雖然使不能筆者當之, 則其於不能筆何哉? 僕果不能筆者也. (『明治十四年辛巳六月五日 與朝鮮紳士筆談問答錄. 末松二郎鴻岳問答』 6월 5일)

다. 후일 어깨의 병이 나은 후 써서 응하겠습니다.³⁹⁾

스에마츠 : 그렇다면 오늘 요구하신 종이에선 존경하는 시(詩)를 쓰는 것이 좋겠으며, 그 종이에 저의 졸렬한 호를 기록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저의 졸호(拙號)는 홍악(鴻岳)입니다.

이상재 : 저는 근래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햇빛을 맞이해서 앉아 시를 몇 수 지었습니다. 옛날의 졸작을 함께 기록해 올립니다. 자상하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自由書屋自由人 자유 서옥에 사는 자유로운 사람이,
獨與靑山好作隣 홀로 청산과 더불어 좋은 이웃 되도다.
幽意元憐天月暮 그윽한 뜻 원래 그림고 하늘의 달 흐릿한데,
故依籬角植長春 일부러 담 모퉁이 의탁해 긴 봄날을 심어두었네.⁴⁰⁾

또한, 이들의 필담에는 빈번히 중화 고전의 어구와 경전이 인용되는 등⁴¹⁾ 한학 지식을 통해 중화적 교양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문사(文士)는 서로의 문화적 거리를 좁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필담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실제 모습은 이와 달랐다. 먼저, 전술한 대로 스에마츠는 한적(漢籍)이 아닌, 당시 최신의 미디어였던 ‘신문(新聞)’을 통해 조선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었으며, 그가 언급한 조선의 서적은 고작 200여 년 전에 간행된 『징비록(懲毖錄)』이 전부였다.⁴²⁾ 그는 오히

39) “此帖上揮毫, 切願切願.”, “今方出門擾擾, 後日臂病快愈後, 書應矣.”(『明治十四年辛巳六月六日 與朝鮮書家李鳳植筆談錄』 6월 6일)

40) “然則, 今日所乞之紙, 寫尊詩而可, 而其紙記拙號是請, 僕拙號鴻岳.”, “僕頃日微恙, 逆燠坐, 詩有數首, 呈併記舊拙作, 乞賜慈政.” 自由書屋自由人, 獨與靑山好作隣, 幽意元憐天月暮, 故依籬角植長春.(『明治十四年辛巳六月五日 與朝鮮紳士筆談問答錄』 末松二郎鴻岳問答』 6월 5일)

41) 昔司馬子長二十, 南遊江淮, 以博其志, 於楚漢古戰場, 得其雄偉之勢, 於洞庭瀟湘之間, 得其廣闊浩蕩之意, 所以韓文公勸, 馬才子學子長之遊, 今見貴下所示, 傲遊放逸, 無所不至云, 果然如子長之南遊乎. 然則雖使韓文公在世, 必當許與一頭地, 不後於馬才子也. 至若知其人, 莫如見書之示, 甚切當切當, 大抵書法, 能寫其心.(『明治十四年辛巳六月五日 與朝鮮紳士筆談問答錄』 末松二郎鴻岳問答』 6월 5일)

42) 僕既已讀貴國鴻儒某氏所著, 懲毖錄, 已知貴邦多文客詩人也. 貴下驚俺之才乎? 俺

려 자신의 의론(議論)을 신문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였다.

스에마츠: (중략) 대체로 귀국이 만약 각국과 더불어 서로 교제하고 통상한다면, 개화지역이 점차 늘어나 저의 나라에도 배로 불어날 것입니다. 장차 귀국 백성들의 행복만이 아니라, 또한 각국의 행복입니다.

이 이론은 비록 우리들이 함부로 입을 벌릴 것은 아니더라도, 저는 근래 홀로 느끼고 홀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주 없음을 헤아리지 않고 『조선론(朝鮮論)』 10편을 지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신문에 투고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그리하지 못했습니다.⁴³⁾

하지만, 이상재는 신문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낸다.

이상재: 우리나라의 정사(政事)는 제가 아직 자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신문지로부터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돌이키는 부끄러움은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근래 귀국의 신문을 보면 공무상의 문서가 아닙니다. 단체를 결성함에 나아가, 들은 것을 따르고 붓을 따라 수집한 것입니다. 비록 이번 우리 행차 중의 일을 논하더라도, 혹 성(姓)을 잘못 쓴 것이 있고, 또 때로는 이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성명이란 것은 밝게 외부에 드러내어, 남이 다 그것을 부르고 남이 모두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잘못 쓴 것을 옳은 듯 여기는데, 하물며 이외의 다른 일이겠습니까?⁴⁴⁾

驚貴下之才乎? 貴下之所驚, 卽假驚也. 俺之所驚, 果是真驚也. (중략) (『明治十四年辛巳六月五日 與朝鮮紳士筆談問答錄. 末松二郎鴻岳問答』 6월 5일)

43) 蓋貴國若與各國相交際通商, 則漸于開化之域, 倍於弊邦歟, 且不特貴國人民之幸福, 亦各國之幸福也.

是理雖非吾輩容喙, 僕頃日有所獨感獨思者, 故不揣不才, 而作朝鮮論十編, 近日將投於新聞紙而未果也. (『明治十四年辛巳七月十九日午後一時乃至五時, 與朝鮮文部理事官閑種默筆談錄』 7월 19일)

44) 我國政事, 僕尙未詳, 而貴下則從新聞紙, 已知之. 僕之自反之忸當何. 近見貴國新聞紙, 則不是公文者也. 卽結社而隨聞隨筆之蒐集者也. 雖以今番吾行中事論之, 或有姓字之誤書, 又或有名字之相左者. 姓名者昭著於外, 人皆呼之, 人皆知之, 而尙

당대의 신문은 정보를 신속하게 확산시켜주는 새로운 매체였다. 근대의 매체는 ‘문명개화’의 헤게모니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이자 각 지방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통상(通商)의 기본 단위인 국민국가의 ‘국민’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한문이 아닌 ‘이로하(伊呂波)’ 문자, 즉 ‘국어(國語)’였다. 조선인 이상재는 일부 “정보의 부정확함”과 공문서가 아닌 형태로 정보-지식 권력-가 돈에 따라 유통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을 뿐, 신문 그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는 탐색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이 시기 보수적이었던 조선 사절단들에게 자주 보이는 태도이기도 하였다.

信書誰謂不如無. 서(書)를 다 믿는다면 없음만 못하다고 누가 그랬던가.
 一紙新聞處處殊. 종이 한 장 신문이 곳곳마다 다르네.
 文字都從錢癖起. 문자가 모두 돈 밝히는 벽[錢癖]을 따라 일어나니
 子虛烏有慣招呼. 자허(子虛)와 오유(烏有)를 익숙히 부르는구나.
 伊呂波文識者無. 이로하(伊呂波) 글자 아는 이 없으니
 行間字裏與常殊. 행간에 감춰진 뜻 보통 글과 다르구나.
 堪嗤藤葛橫魔界. 칩과 등이 뒤얽힌 마계, 비웃을 만하도다.
 不過風呼雨亦呼. 바람이 불면 비 또한 내리는 것에 불과하구나.⁴⁵⁾

이상과 같이, 1884년 파견된 종사관 박대양(朴戴陽) 역시 공적 문서도 아닌 제3의 존재가 권위를 갖고 정보가 활자화되는 상황을 처음 겪었고, 더구나 일본어가 한자어 사이에 끼어들어 ‘보통’과는 달랐기에 신문을 신용하지 않았으며 미디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이미 공적 문서에서도 중요한 정보들은 한문이 아닌 일본어로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인들은 전술한 대로 이를 예상하지 못하여 일본 현지에서 적지 않게 당황하였고, 한역해줄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구해야 하는

此誤書似是, 況外他事乎?(『明治十四年辛巳六月十一日. 與朝鮮紳士筆談問答錄. 末松二郎鴻岳問答』 6월 11일)

45) 『東槎漫錄』, 『東槎漫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스에마츠: (전략)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문자와 언어가 있는 즉, 이른 바 ‘왜문자(倭文字)’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번다한 것을 싫어하고 간단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지금의 정체(政體)와 사정(事情)을 말하거나 기재한 글은 한문으로 하지 않고 왜문자(倭文字)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문(漢文)으로 두루 자세함을 다한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만약 우리나라 지금의 정치 체제를 듣고 싶다면, 저는 재주 없음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재: 과연 귀하의 말씀과 같습니다. 항상 긴요한 문장에는 이로하[伊呂波] 문자가 많이 사용되어 있으니, 다른 나라 사람이 어찌 상세히 알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얻은 책자 하나로 질문하는 것입니다.⁴⁶⁾

필담을 통해 정감을 나누면서 동문(同文)의 공동체적 소속감 혹은 안도감을 느끼려 하였지만, 정작 시찰단원들이 실제로 가져가려는 정보들은 ‘왜문자’로 되어 있어 이들이 겪은 메이지 일본은 결국 이문화(異文化)의 세계였으며, 이로 인해 문화적 충격과 인식의 균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스에마츠: 나카무라 게이우(中村敬宇)⁴⁷⁾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일본어, 한문, 영어 세 가지 학문에 아울러 통했기 때문에 당시 학자 중 최고가 되었습니다.⁴⁸⁾

46) “(전략) 然我邦自古有我國之文字言語, 卽所謂倭文者, 今人多厭繁好簡, 而方今政體事情言載之文, 多不漢之而倭之, 故盡其詳悉之書, 則不有漢文者, 然足下若欲聞我方今政體, 則僕不顧不才, 爲有所言焉.” “果如貴言, 每於緊要之文, 多用伊呂波字, 他國人何以詳知? 當以俺之所得冊子一質問也.” (『明治十四年辛巳六月七日 自由書屋主人末松二郎鴻岳 筆談問答 與朝鮮紳士 筆談問答錄』, 6월 7일)

47)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1832-1891. 도쿄제국대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흥아회(興亞會) 회원이었다. 역서로 『서국입지론(西國立志編)』 등이 있다.

48) 是人卽中村敬宇者也. 該人兼通和漢洋三學, 故爲當時學者之巨擘. (『明治十四年辛

위와 같은 스에마츠의 말에서 보이듯, 이미 당대의 상황은 ‘한문’이라는 중화적 진리 공동체의 문어(文語)만으로는 최고가 될 수 없는, 자국어와 통상 상대국의 언어 등 ‘구어(口語)’에 능통해야 최고의 학자가 되는 - 즉, 지식 권력이 확보되는 - 세계였던 것이다.

양국의 문사에게 발생한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스에마츠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 이후 일본에 개방된 조선의 상황을 듣고 다음과 같이 “문명(文明)이 하루하루 날로 성해진다”고 표현하였다.

스에마츠: (전략) 근래 다행히 우리나라의 여러 신문을 읽고서, 대략 귀국의 문명이 하루하루 날로 성해진다는 것을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유진태: 비록 한 마을 안이라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 안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나아가면 문명으로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둔하고 졸렬하여 40세가 되어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하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스에마츠: 저는 어려서부터 풍류(風流)를 좋아하는 버릇이 있었습니
다.⁴⁹⁾

여기에서 스에마츠가 말하는 ‘문명(文明)’이 근대적 의미의 ‘문명개화(civilization)’를 의미함은 자명하지만, 유진태는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문채가 뛰어난’으로 이해하여 나라 전체가 그럴 순 없고 문장이 뛰어난 유명한 몇 사람이 있다고 답하니 스에마츠는 이내 다른 화제로 돌린다. 당시 ‘문명’이란 근대의 개념어는 조선인들에게 낯선 한자어였기에 이상재 역시 문장이 뛰어나다는 뜻으로 ‘문명’을 파악하였다.

已六月十二日. 自由書屋主人 末松二郎 鴻岳筆談問答』6월 12일)

- 49) “(전략) 頃日幸讀了我諸新聞紙, 略得詳貴國文明日盛一日矣.”, “雖一村之內, 有貧者焉, 有富者焉, 況一國之內乎? 就其中, 有文明可得名之人焉, 又有魯劣四十無聞之人焉, 貴第思之.”, “僕自幼時有風流之癖.”(『明治十四年辛巳六月五日 與朝鮮紳士筆談問答錄. 末松二郎鴻岳問答』6월 5일)

스에마츠: (전략) 이미 당신 나라에 문객과 시인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귀하께서 저를 놀라게 하는 재주이십니까? (중략)

이상재: 저는 『징비록』이 지어졌던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전일의 문명이 지금의 저 이상재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더욱 두렵고 더욱 두렵습니다.⁵⁰⁾

‘문명개화’한 여러 나라를 유람하라는 스에마츠의 권고에도 이상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에마츠: 어찌 구주(歐州)와 아시아 나라의 문명이 개화한 수도(首都)를 유람하지 않습니까? 영경(英京)과 불도(佛都)와 아부(亞府)의 모든 곳이 그대의 멋진 유람에 알맞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의문이 있는 바입니다.

이상재: 무슨 의문이 있습니까? 대저 인생의 유람은 어디로 간들 불가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제한 조건이 앞에 있는 법입니다. 귀국은 수호통신(修好通信)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유람하러 오는 것일 뿐입니다. 귀국 외에 다른 나라는 애초 서로 통함이 없는데, 어찌 쉽게 스스로 우리나라의 금지 규정을 어기며 해외 유람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애초 외교 규정이 없으며, 섬기는 것은 오직 청국(淸國)이고, 교유하는 것은 오직 귀국뿐이기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어려움을 꺼리지 않고 온 것입니다.⁵¹⁾

50) “(전략) 已知貴邦多文客詩人也。貴下驚俺之才乎? 俺驚貴下之才乎? 貴下之所驚, 卽假驚也。俺之所驚, 果是真驚也。(중략)”, “我非懲毖所撰時人也。前日文明, 何關於今日李商在乎? 更驚更驚.”(『明治十四年辛巳六月五日 與朝鮮紳士筆談問答錄. 末松二郎鴻岳問答』, 6월 5일)

51) “何不爲歐州亞國文明開化都府之遊耶? 英京也, 佛都也, 亞府也, 皆所宜君之遨遊焉。是僕所以有疑問也.”, “有何疑焉? 大抵人生遊覽何往不可, 而但各有艱限在前, 貴國則自是修好通信之國也。所以來遊而已, 於外他各國, 則初無相通, 何可容易自犯於我國之禁, 而往遊耶? 我國則初無外交之規, 而所事者, 惟淸國也, 所交者惟貴國也。則不憚跋涉之艱難而來矣.”(『明治十四年辛巳六月七日 自由書屋主人末松二郎鴻岳 筆談問答 與朝鮮紳士 筆談問答錄』, 6월 7일)

위와 같이 조사시찰단은 일본을 시찰하라는 왕명과 새롭게 정비된 국제법상의 외교관계 속에서 과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대와 교린의 세계 질서 안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한계를 보였다. 이처럼 당대의 유행하는 말들은 주지하다시피 형태만 한자어였을 뿐 그 의미는 이전 시대와 달랐으며, 양국의 문사들은 세계를 불균등하게 이해하였고 자연스럽게 동문(同文) 의식 역시 점차 균열되어 갔다.

이 지점에서 『스에마츠 지로 필담록』에 등장하는 일본인들, 또 조사시찰단이 교류하였던 일본인들이 대체로 당대 유행하던 아시아 연대론자들이었다는 점은 이 아시아 연대론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여실히 드러낸다.⁵²⁾ 스에마츠를 비롯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과 수창하고 휘호를 증정하는 등 문자를 교환하고 일본의 자료를 한역해주면서 ‘한문’이라는 문화적 공감 기재로 조선인들과 우정을 나누며 협력 관계를 맺었지만 사실 이는 현실을 은폐하는 수사들에 불과하였다. 현실에서의 ‘중화’는 결코 최신의 정보를 담을 수 없었으며, 최고의 지식은 각국어에 뛰어나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아시아 연대는, ‘아시아(亞細亞)’ 그 자체가 ‘중화(中華)’를 탈피한, 유럽 대륙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개념어였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중세적 공동체의 해체를 전제로 한 국민국가 단위의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를 통해서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⁵³⁾

52) 앞에서 언급하였던 나카다 다케오(中田武雄)도 이현영과의 문답에서 아시아 연대를 강조하였고,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繹), 미시마 주슈(三島中洲),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등 역시 홍아회의 회원이었다.

53) 이효정, 『제2차 수신사의 일본 견문 태도와 교류의 실제』, 『열상고전연구』 51권, 열상고전연구회, 2016, 225-250쪽.

4. 나오며

통신사 시대만 해도 일본인들은 중화 문명의 정체였던 조선 문화를 흠모하였고, 임진왜란의 상처와 유교적 우월감이 중첩되었던 조선 사절에게 일본은 문화의 수혜국 또는 야만국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불과 한 세기 후 조선왕조가 일본에 60명 남짓의 대규모 시찰단을 일본을 ‘알기 위해’ 파견한 것은 동아시아 지식·문화 지형의 격변이라 할 수 있다. 조사들은 일본의 각 성을 분주히 다니며 정보를 수집하였고, 수행원들은 이에 대한 번역물을 확보하고자 동분서주하였다.

본고에서는 『스에마츠 지로 필담록』을 살펴, 조사시찰단이 스에마츠 지로라는 일본인 한학자를 통해 일본의 최신 정보가 담긴 서적을 한역하여 시찰기 보고서로 작성한 정황을 밝혔다. 이를 통해 시찰기 보고서는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단기간 내에 수집해야 했던 조사들과 이들을 도와왔던 수행원, 그리고 직접 한역 작업을 했던 일본인 한학자들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동안에는 시찰기 속에 드러난 상당수의 일본식 한자어로 인해 막연히 일본인들의 한역일 것이라 추측되었지만, 본고에서는 필담록이라는 실제 자료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하지만 이 한역본들의 저본이 된 원전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으며, 전술한 내무성, 농상공부, 문부성의 시찰기 외에 『일본사법성시찰기(日本司法省視察記)』, 『일본육군조전(日本陸軍操典)』, 『공부성(工部省)』, 『외무성(外務省)』 등 많은 한역자료들의 원전과 번역자를 조사하여 밝히는 연구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필담이나 사행록과 같은 자료들이 한일 양국에서 더 발굴되어야 하겠다.

또한 이러한 한역 자료의 협력적 특성이 결국은 제한된 기간 동안 시찰단원 중 누구도 시찰한 내용을 체화하지 못하는 한계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일본의 이와쿠라(岩倉) 사절단과 비교하여,

조사시찰단의 방대한 보고서가 활발히 출판 및 유통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대의 정보들이 조선에서 활용되지 못하였다는 평도 있지만, 이와쿠라 사절단 귀국 5년 후 한 사람이 기록을 정리하여 편찬한 『特命全權大使米歐回覽實記』와 일본인들의 한역을 급히 교정하여 귀국 즉시 보고한 조사시찰단의 결과물을 쉽게 비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준비 없이 시찰의 임무를 맡고 일본으로 건너와, 근대의 문물을 낯설게 경험하고 아시아 연대론과 같은 중화 공동체의 균열을 세밀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시찰단원들의 모습에서 시찰의 결과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대로 동아시아의 지식·문화 흐름에서 조사시찰단의 활동과 그 결과를 분석하는 일은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특히, 그들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일본의 최신 서적⁵⁴⁾과 근대 용어들을 밝혀 새로운 지식의 유입 즉, 이 정보들이 향후 조선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활용되는가를 추적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곧 조선의 초기 근대화 과정과 조선만의 근대성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54) 『스에마츠 지로 필담록』에 등장하는 일본의 서적은 다음과 같다. 『황조정요(皇朝政要)』, 『근세위인전(近世偉人傳)』, 『가인전(佳人傳)』, 『지리논략(地理論略)』, 『농학전서(農學全書)』, 『농무소언(農務小言)』, 『농자(農字)』, 『농정본론(農政本論)』, 『만통지(萬通誌)』, 『파우론(把憂論)』, 『관규론(管窺論)』, 『행원이론(杏園理論)』. 이 서적들에 대한 조사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김기수, 『日東記游』
민건호, 『東行日錄』
_____, 『從宦日記』
_____, 『日本國內務省各局規則』
_____, 『日本國內務省職掌事務全 附農商務省』
_____, 『日本國農商務省各局規則』
송헌빈, 『東京日記』
스에마츠 지로, 『末松二郎筆談錄』
안광목, 『滄槎紀行』
이현영, 『日槎集略』
조준영, 『文部省所轄目錄』

2차 자료

- 아키즈키 노조미(秋月望), 「스에마츠 지로의 필담록에 나타난 ‘근대’, 『근대 교류사와 상호인식』 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9-41쪽.
윤현숙, 「1881년 조사시찰단의 보고서 작성 방식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54권, 열상고전연구회, 2017, 225-250쪽.
이효정, 「1881년 조사시찰단의 필담 기록에 보이는 한일 교류의 한 양상, 『한국문학논총』 56집, 한국문학회, 2010, 103-128쪽.
_____, 「제2차 수신사의 일본 견문 태도와 교류의 실제」, 『열상고전연구』 51권, 열상고전연구회, 2016, 225-250쪽.
진재교, 「18세기 조선통신사와 지식·정보의 교류」, 『한국한문학연구』

56권, 한국한문학회, 2014, 360-392쪽.

한태문, 「紳士遊覽團 使行錄에 반영된 한일문화교류 : 『日槎集略』과 『東行日錄』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52권, 대한일어일문학회, 2011, 405-420쪽.

허경진, 「수신사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태도 차이」, 『열상고전연구』 53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29-56쪽.

허동현, 「조사시찰단(1881)의 일본견문기록 총람」, 『사충』 48집,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98, 23-53쪽.

_____, 『근대한일관계사연구』, 국학자료원, 2000, 11-313쪽.

<Abstract>

An aspect of East Asian knowledge
interaction that emerged on the 1881 Official
Observation Group in the late 19th century
- Focus on the “Written Conversations among
Suematsu Jiro and Officials from Chosun” -

Lee, Hyo-Jeong*

The interchange of knowledge and culture in premodern East Asia had been performed by sending envoys, and the cultural interchange of Chosun had been also carried out in this way under traditional policy, which meant embracing Chinese culture and conciliating Japanese culture, based upon a premise that the knowledge and cultural power of East Asia flows from the Chinese continent to the Japanese islands.

This knowledge and cultural topography changed by modern period with Western civilization. Although Chosun had been incorporated into the International law(萬國公法) upon the Joseon-Japan Treaty in 1876, the first and second Susinsa still maintained relationship with Japan under the good-neighbor policy. In 1881, however, King Gojong voluntarily sent the inspection team unofficially, not for social intercourse, but for inspection and exploration of Japan, which represents the reversal of the cultural flow of East Asia. The Korean entourage were busy obtaining the books in Chinese version

* Sejong University

translated by Japanese containing Japanese information, and these specific situations were described in the “Written Conversations among Suematsu Jiro and Officials from Chosun”. Suematsu Jiro, the scholar of the Chinese literature, seems to have been involved in translation of inspection reports about the Departments of Interior, Agriculture, and Commerce by interacting with Lee Sang-Jae, Lee Bong-Shik, and Cho Joon-Young et al. He also seems to have translated a part of Munbuseong Sohalmokrok. The writers or the exact process of inspection reports have been unclear, but we can assume them partly by written conversations.

At this time, we can recognize the modern and premodern characteristics simultaneously from written conversations. Though the main source of information for the Japanese people had been changed to newspapers, Korean judged this situation negatively. Moreover, Japanese shouted for cultural enlightenment, but they still made an effort to gain the handwritings of Korean. In addition, the indifferent and passive attitude of Korean entourage toward other fields except those in charge demonstrates the limitation of the inspection team’s activities.

Key Words: the 1881 Official Observation Group, Suematsu Jiro, Lee Sang-Jae, Park Jeong-Yang, Lee Bong-Shik, Cho Joon-Young, *Ilbonguk Naemuseong Gakkuk Gyuchik*, *Ilbonguk Naemuseong Jikjangsamujeon*, *bunongsangmuseong*, *Ilbonguk Nongsangmuseong Gakkuk Gyuchik*, *Munbuseong Sohalmokrok*

■ 논문접수 : 2018년 3월 19일

■ 심사완료 : 2018년 4월 7일

■ 게재 확정 : 2018년 4월 16일